

외국인 유학생의 기초학문 수학 능력 제고 방안

문정현¹⁾

Study on Improving Learning ability to Liberal education for Foreign Students

Jung-Hyun Mun¹⁾

요 약

최근 국제간의 상호 협력 증대로 인해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교에 적응하고 학업을 수행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 수행에 필요한 언어 수준에 한국어 능력이 미치지 못하며, 한국 문화의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각 대학 기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 적응 방안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그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대학 수학을 위해 기초학문 수학 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내용중심한국어교육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들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능력이 언어와 내용 학습임을 확인하였다. 그 중 기초학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학생의 성공적인 대학 수학을 위해 내용중심한국어교육을 제안하였다. 이후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적합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내용중심 한국어 교육을 적용한다면 그들의 언어 능력 및 대학 수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 외국인 유학생, 대학 수학 목적 학습자, 내용중심한국어교육, 지식 기반 한국어, 기초교양 교육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who want to study at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s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utual cooperation. However, many international students are having difficulties in adapting to Korean universities and conducting their studies. Most international students are unable to reach the language proficiency level required for academic performance and enter the university with a lack of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Because of this situation, each university institution discusses the necessity of university adaptation plan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proposes various programs suitable for it. In this study suggest a content-based Korean instruction as a way to improve the basic mathematical ability for successful university mathematics as well as support measures for the adapt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university life. To this end, It were identified grasped the

Received(June 12, 2018), Review Result(June 22, 2018), Accepted(July 13, 2018), Published(September 30, 2018)

¹⁾(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Future Capability Education, Pai chai University, Doma-dong, Seo-gu, Daejeon, Korea.

email: hyun@pcu.ac.kr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understood that they lacked language and learning skills. It can highlight the necessity of General Liberal Education and proposed a content-based Korean instruction for their successful academic performance. It is expected that the university will improve the language ability and academic ability of international students by opening the necessary cours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applying content-based Korean instruction.

Keywords : Foreign Students, Academic Purpose Students, Content-Based Korean Instruction, Knowledge-based Korean, General Liberal Education

1. 서론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매년 유학생도 늘고 있다. 유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업 문제, 인간관계, 대학생활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대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외국인 유학생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된다. 하지만 정부나 대학기관에서는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국내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정책을 다변화하고, 기초·교양교육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1].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대학기관에서는 한국어 능력 향상과 성공적인 대학 수학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유학생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대학에서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언어와 내용적 지식을 함께 키워 갈 수 있는 대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유학생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들의 전공은 인문·사회 계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공 심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기본적인 기초학문의 이해를 높여 그들의 수학 능력 키울 수 있는 능력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능력을 학생들에게만 요구하기보다 학교나 교수자 차원에서 이를 위해 수업에 적용 가능한 내용중심한국어 교육을 기초학문의 이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내용중심교수법 연구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연구가 되어왔던 대상이다. 국내 한국어 교육에서 학문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는 이정희·김지영(2003)에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최고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 방법으로 내용중심의 언어교수법(content-based language teaching, CBLT)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중심 한국어교육과정의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읽기'를 꼽으면서 읽기 과정이 중요한 영역임을 보였다[3].

강현화·박동규(2004)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교수 모델로 내용중심 교수 형태 중 하나인 병존 언어 교수 모델의 적용 방안에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경영학 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존 언어 교수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주교사를 시작으로 온라인 강의, 언어교사의 보조수업, 개인별 학습도우미 등의 형태로 구성됨을 보이고 각 부분의 역할을 제시하였다[4].

권화숙(2017)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대학에서 교양 수업으로 한국사를 듣거나 한국학을 전공하는 고급 수준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전공 학문 수행 능력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용 중심 교수법에 기반한 주제 중심 언어 학습 모형(Theme-based language instruction)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한국어-한국어 통합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수 시 한 문장의 구성요소를 파헤치는 것이라기보다 담화나 본문 안에서의 지식 정보와 의미 있는 내용을 교육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5].

학문 목적 학습자 이외의 연구에서 심혜령(2015)은 KSL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과학교실' 프로그램 운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면서 다문화 학습자를 대상으로 내용 중심 교수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교수 방법 적용은 그들에게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 하면서 교과목 내용의 기초적인 개념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6].

한국어 교육에서 학문목적 학습자 대상으로 내용중심 교수법을 적용한 연구는 있지만 내용중심에 대한 개념을 살피거나 기초학문에서 일부 편중된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 논문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기초학문 수학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공 심화시 뒷받침 되는 기초학문의 이해를 높이고자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전용 교과목의 현황을 살펴본 후 학습자에게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학업을 체계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겠다. 이후 학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와 학술적 내용 모두 이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중심 한국어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학업 현황 실태

국내 대학의 유학생은 학업 수행에서 학업의 이해, 과제 해결, 학점관리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대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적 능력이 뒤떨어지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학술적 어휘 지식과 학문적 배경 지식 등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학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학부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술적 어휘 지식과 학문적 배경 지식 등 전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양교과의 기초학문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한국어 수준은 70%가 한국어능력시험 5·6급을 취득한 고급학습자였으며, 30%는 3·4급을 취득한 중급학습자였다. 그리고 1학년이 5%, 2학년 15%, 3학년 30% 4학년이 50%였다.

설문 결과는 이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용어 및 어휘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그렇다'가 15%, '그렇다'가 35%,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가 각각 35%와 15%를 차지하여 50%임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이 각각 50%였으나 학부생의 반이 기본적인 학술적 어휘나 용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은 학업 수행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생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교양 지식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각각 5%와 55%였으며,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가 35%와 5%로 40%를 차지하였다. 학생들이 '기초적인 교양지식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0%, '모른다'라는 응답이 40%였는데 이 역시 반에 가까운 학생이 모른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80%가 3·4학년으로 기초 교양이 어느 정도 정립되었으리라 기대되는 학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수치로 보인다.

이들이 지금까지 '교양과목 중에 수강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는 '문화와 예술'이 55%, '인문과 철학'이 35%, '경제와 사회', '과학과 수리'가 각각 5%의 응답률을 보였다. '문화와 예술', '인문과 철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와 사회', '과학과 수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전문 지식이나 배경 지식 없이도 쉽게 이해하고 해석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어 수업을 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교양교과목을 들을 때 어떠한 내용의 교과목이 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35%가 '한국어 실력을 높이는 과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5% 전공과 관련된 기초지식 교과목, 20%가 교양지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교양교과목, 20%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의 교과목 20%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에게 있어 여전히 한국어 실력을 높이는 과목이 우선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나 '전공 관련 기초지식 교과목, 교양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양교과목,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의 교양교과목'은 그야말로 기초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부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65%가 기초학문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 이들이 기초학문에 대한 내용의 교과목을 요구하는 동시에 '원하는 수업 방식'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교과목과 관련된 전공 교수'가 수업 하는 것에 25%의 응답률이 나왔으며, 교과목과 관련된 전공 교수와 한국어 교수의 팀티칭이 30%, 두 수업 방식 모두를 원하는 응답이 40%나 되었다. 이는 학생의 수준과 목적에 따라서 교수 방식을 조절하여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그 방안으로 내용중심 교수법을 꼽을 수 있겠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교양과 전공 수업의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학습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학업 어려움의 원인으로 부족한 언어 실력을 꼽고 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유학생들은 단순히 제2언어 학습자가 아니라, 이미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고등 수준의 학업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언어 능력을 높일 수업을 제공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언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문의 수행 능력 향상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교양 수업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교양 수업은 그들의 부족한 언어 실력을 고려하고 세심한 언어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학문의 내용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교양 수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언어 수업에 중점적으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대학별 외국인 전용 교과목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7].

[표 1] 외국인 전용 교양교과목
 [Table 1] Liberal Arts for Foreign Students

30개 대학	외국인 전용 교양교과목				
	교양 한국어 (듣기기술, 말하기기술, 읽기기술, 쓰기기술)		한국학 관련 (한국 사회, 한국 정치 한국 역사, 한국 지리 등)	한국 문화	기타
211과목	듣기	4	27	39	14
	말하기	18			
	읽기	11			
	쓰기	23			
	문법	4			
	발표보고서 읽기쓰기	10			
	통합한국어	59			
	전체	129			

정서영(2017)에서는 30개 대학의 외국인 전용 교과목을 크게 '교양 한국어, 한국어학, 한국문화'로 나누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교양 한국어는 언어 기능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개설된 교양교과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국어 교과목이 211개의 교과목 중 129개 교과목으로 전체 교과목의 62%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내용 관련 교과목은 한국학 관련 교과목으로 '한국의 사회, 정치, 역사, 지리' 등으로 전체의 27개 교과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국문화는 39개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속해 있는 교과목은 '한국역사의 이해', '한국사회의 이해'가 개설되어 있었으며, 과학과 수리, 경제 등과 관련한 교과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교양을 쌓아 전공이나 대학의 교과과정을 이해하고 졸업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굉장히 부족한 개수의 교과목 있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수학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과정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근거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학습자가 학문을 위해 내용 학습을 해야 하는데 한국어 능력 향상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학문 즉, 한국학적 내용을 알 수 있는 교과목을 외국인 유학생이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그 내용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여러 영역의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언어와 내용 학습을 함께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초학문의 개념 및 필요성

현재 국내의 대학 교과과정은 전공과 교양으로 나누고 있다. 그중 교양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기초 교육의 표준 모델'에 근거하고 있으며 '교양기초 교과목의 기본요건'에 따라 대학별 건학이념과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교양교육의 개념은 "교양교육의 본래 핵심 영역으로 기초학문 분야 교과목들로 채워지는 것이 원칙이며, 그 영역 구분은 주제별 혹은 학문분야별로 할 수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영역의 '주제별 영역'은 "자연 및 과학, 기술의 본성 및 성과, 인간의 본성 및 조건, 문화현상과 현대문명, 사회적 현실, 역사적 현실, 인륜성 탐구와 도덕적 추론, 종교적 가치, 미적 가치" 총 9개의 영역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학문 분야별 영역'은 또 다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뉘고 그 안에 "문학·예술, 역사·철학·종교, 정치학·경제학, 사회학·문화학·심리학, 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과학" 5가지로 세분화 된다[8].

이러한 기초학문이 각 대학에서 강조되는 이유와 목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공동체의식·시민정신 함양,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수학을 위하여 다양한 기반과 기초 학문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이 되는 교과목들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한다. 이들은 언어를 배우려고 대학에 입학한 것이 아니며, 궁극적 목적은 학문적인 내용 즉, 대학 수학이 목적이다. 학습자의 언어 학습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언어와 내용 학습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내용중심한국어교육을 제안한다.

4. 내용중심교수법의 개념 및 필요성

내용중심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 CBI)은 언어와 내용에 대한 지식을 동시에 학습하는 교수법이다. 내용중심교수법은 언어의 기능이나 형태의 초점보다는 학습할 학문의 내용에 초점을 둔 교수법이다. 즉 CBI는 목표어로 구성된 자료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되, 이 자료가 언어 사용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맥락 하에 나타나도록 구조화되어 학생들에게 제시되었을 때 정보 습득과 언어 학습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도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6].

Mariam Met(2009)에서는 내용 중심과 언어 중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아래와 같이 보여 주고 있다[9].

[표 2] 내용 중심 언어 교수: 내용과 언어 통합의 연속체 (Mariam Met. 2009)

[Table 2] CONTENT-BASED LANGUAGE TEACHING: A CONTINUUM OF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ION

내용 위주 ←		→ 언어 위주			
완전 몰입 프로그램 (Total Immersion)	부분 몰입 프로그램 (Partial Immersion)	내용 보호 과정 (Sheltered Courses)	병존 모형 (Adjunct Model)	주제 중심 언어 과정 (Theme-Base d Courses)	언어 연습을 위한 내용 사용이 잦은 언어 수업 (Language Classes with Frequent Use of Content For Language Practice)

먼저 좌측 극단에 위치한 완전 몰입 프로그램은 초등교육 수준에서 이민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중심언어 교수이다. '완전 몰입'은 습득하고자 하는 언어권에서 배워야 할 교과목을 해당 목표 언어로 가르치는 언어 교수를 말한다. 이때 필수로 교수되어야 하는 교과목의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시된다. '부분 몰입'과의 차이는 '완전 몰입'이 100% 목표 언어로 진행되는 반면에 '부분 몰입'은 모국어가 일정 비율 사용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우측 극단에 위치한 '언어 연습을 위한 내용 사용이 잦은 언어 수업'은 보통 언어교육원의 고급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언어 수업으로 내용은 도구일 뿐 언어 학습이 목표인 수업 방식이다.

한편 대학기관과 같은 고등 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중심 교수로 '내용 보호 과정', '병존 모형', '주제 중심 언어 과정'이 있다. '내용 보호 과정'은 언어보다 내용을 학습하고 습득하는 것이 목표이며, 내용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과정이다. '병존 모형'은 내용과 언어 모두가 목표인 수업으로 내용 전공 교수자와 언어 교수자가 함께 팀티칭을 하는 수업 방식이다. '주제 중심 언어 과정'은 언어 교사가 교수하며 언어 목표가 뒷받침되고 주제별로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어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중심교수법을 외국인 유학생의 학부 수업에 적용시켰을 때 학습자의 언어 수준과 수업 내용, 상황 및 목적 따라 다르겠지만 다양한 효과가 예상되며, 기초학문이라는 교과목에 적용한다면 언어와 내용 모두 습득하여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어 실력 향상이 아닌 전공 지식 즉, 학술적 내용을 습득한 뒤 졸업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학부를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이다. 따라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언어보다 학습 내용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교수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내용중심교수법을 통하여 내용뿐만 아니라 언어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교육 방안은 학습자가 목표어를 사용할 실제 환경을 고려해야 하고, 학습자가 자신에게 연관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면 사용한 정보 내용이 언어 학습에 동기를 증가시켜 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게 된다. 그리고 외국어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습득하는 정보가 흥미 있고, 유용하며 원하는 목표로 연결될 때 가장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10].

5. 외국인 유학생의 기초학문 수학 능력 제고 방안

국내 대학에서의 기초학문이라 함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기초 교육의 표준 모델'에 근거하여 교양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기초학문 분야 교과목들로 채워지며, 그 영역은 주제별 영역과 학문 분야별 영역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인문과 철학, 경제와 사회, 과학과 수리, 문화와 예술'등과 같은 것으로 포함되어 각 대학에서 교양인 기초학문 교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다. 그 중 외국인 유학생은 각 대학에서 개설된 교양교과목 외에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전용 교양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하며, 이 교과목은 다시 언어를 기반으로 한 교과목과 배경지식이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과목으로 나뉘어 개설되어야 한다.

이때 외국인 유학생 전용 교양교과목에 적용될 수 있는 교수 방안은 내용중심 교수법으로 개설된 교과목이 언어 중심 교과목인지 내용 중심 교과목 인지 여부에 따라 '내용 보호 과정, 병존 모형, 주제 중심 언어 과정'으로 나누어 목적에 맞게 적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전공 수업의 과학이나 이공계의 실험 수업은 내용적인 목표가 있으므로 '내용 보호 과정 수업'으로 진행하며, '유학생을 위한 재미있는 역사이야기', '유학생을 위한 재미있는 과학이야기'와 같은 교양교과목에는 역사 전공의 교수자와 한국어 교수자가 팀티칭을 이루는 '병존 모형'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겠다. '주제 중심 언어 과정 수업'은 언어 교사가 '시사 한국어'라는 교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주제별 시사 내용을 공부하되 내용을 이해하면서 어휘와 표현 등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수업 방식이다.

위와 같이 내용중심 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 CBI)은 학습자에게 언어자료를 제공하면서 의사소통의 기회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중심 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 CBI)은 언어와 내용 지식을 동시에 학습하는 교수법으로 수업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학습 상황과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양교육을 주제별 학문 분야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교수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하면 된다. 역사, 과학, 시사뿐 아니라 정치학, 문학, 수학, 예술 분야 등의 교과목에도 접목 시키면 외국인 유학생의 기초적인 학문 습득에서 나아가 심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 갖추어 질 것이다. 이는 언어와 학술적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에서 보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이 될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 학부로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기초학문 수학 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내 놓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교과목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능력이 한국어 능력과 대학의 학업 수행 내

용임을 파악하였다. 그 중 기초학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대학 수학을 위해 내용중심교수법을 제안하였다. 이후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의 교과목을 개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언어 및 대학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내용중심한국어교육을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논의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언어와 내용 습득을 동시에 해야 하는 외국인 학부 유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용중심교수법의 제안과 적용 방안을 논의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ferences

- [1] S. S. Kim, H. S. Kim, B. H. Han, K. S. Don, S. E. Yoo,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2014), Vol.8 No.6, pp.197-231.
- [2] J. H. Mun, H. R. Shim, *Journal of Liberal Arts Education Studies*. (2017), Vol.2, No.1, pp.75-104.
- [3] J. H. Lee, J. Y. Kim,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003), Vol.14, No.1, pp.211-232.
- [4] H. H. Kang, T. K. Park,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004), Vol.15, No.2, pp.1-23.
- [5] H. S. Kwon, *Journal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2017), Vol.102, pp.315-338.
- [6] H. R. Shim, T. K. Park, *The Academ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2015), Vol.105, pp.325-347.
- [7] J. S. You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Academic Purposes: Focusing on a Pre-session Course for Students in the Liberal Arts and Social Sciences. (2017) Dept. of Kore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angmyung University.
- [8] http://konige.kr/sub02_08.php/, Jun 8 (2018).
- [9] Mariam Met. Content-Based Instruction: Defining Terms, Making Decisions, National Foreign Language Center. (2009)
- [10] Y. M. Kim, D. H. Park, *The Language & Culture*. (2009), Vol.5, No.3, pp.193-215.